光日春秋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내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제도의 변화가 불가피 하다.지난달 헌법재판소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 한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이다. '표의 등가성 실현'이 쟁 점으로 하나의 자치구 시·군에 최소 1명 이상의 시·도 의원을 보장하는 취지보다 지방의회 의원의 지역 대표 성을 고려할 필요가 더 크다는 의미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헌재가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인구편차의 상하 50% 기준'에 해당된 전북 장수군과 같은 경우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급격 한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지방소멸이 가져온 결과다.

전북 장수군 인구는 2만명을 약간 넘는다. 올해 기준 으로 인구 5만 이하의 자치구는 전국에 50곳 이상으로 알려진다. 인천과 부산에도 각각 1개씩 있고 특히 군 단위 지역이 심각하다. 전남 11개 강원도 10개 경북과 경남 각각 8개 전북 7개 충북 6개 충남 4개다.

현재의 단순다수+소선거구의 광역의원 선거제도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갖는다. 대량의 사표가 불가피 하며 지역 대표성과 표의 등가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전자는 선거제도의 구조적 문제이고 후 자는 한국적 특수성이다.

24%만 득표해도 당선되는 선거라고 불릴 정도로 광 역의원 당선자의 60% 이상이 과반 미만의 득표로 당선 된다고 한다. 평균적으로 45%~55%의 유권자 의사가 의석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셈이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선호투표제가 대안이다

률의 왜곡은 물론 비례성과 대표성의 위기이기도 하

국회는 내년 2월까지 제도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다 양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지역정 당, 중대선거구제,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 전국통 일기호제 페지 등이 대표적이다.

선거제도로 좁혀보면 중대선거구제는 실패 가능성 이 높다. 2022년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제 실험 결과 때문이다. 전국 30개 지역구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당선자 109명 중 소수정당 후보는 4%에 불과하고 96%는 거대 양당이 독점했다.

결국 선거구의 크기를 단순히 늘리는 것은 근본적 문 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권자의 투표 방식 자체의 변경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정치의 가장 위대한 발견'으로 불리는 선호투표제가 가장 현실적 대안이다. 소선거구제의 고질적 문제와 지 역소멸의 한국적 특수성 그리고 중대선거구제의 거대 양당 독점 등을 동시에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1타 3피'의 선거제도가 선호투표제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자들에게 순위를 매겨 한 번만 투표 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저 득표자 를 탈락시키며 표를 재분배해 결국 가장 많은 선호를 받은 후보를 뽑는 방식이다. 소수의 존재와 목소리가 다수결의 폭정에 의해 억압받는 다수결의 역설과 비례 성+대표성 위기의 동시해결을 위한 오랜 노력의 결과

선호투표제의 과반수 당선자의 비례성과 대표성 확 보와 사표의 최소화는 다양한 정치적 효과를 동반한 다. 일반적으로 선호투표제는 네거티브 경쟁의 완화와 중도 지향형 캠페인을 유도하며 정치적 다양성의 확대

호주는 1918년부터 선호투표제를 사용한 최초의 국

가이고 아일랜드도 1921년부터 시행 중이다. 두 나라의 공통된 효과는 선호투표제가 거대 정당들로 하여금 새 로운 사회적 의제에 주목하고 중도 통합적 요구에 더 민 감하도록 유도하는 '완화 장치'로 기능했다는 점이다.

2021년 첫 선호투표제 선거에서 뉴욕시 의회는 여성 의원 수가 과반을 넘었고 유색인종 후보가 3분의2 이상 당선되어 역사상 가장 다양한 의회 구성으로 평가된 다. 이번 주 실시된 2025년 선거에서도 역대급 투표참 여를 기록한다.

선호투표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와 발전을 위한 제도 개혁의 핵심으로 주목된다.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적(비례성과 대표성의 강화)에 가장 잘 부응 하는 선거제도다. 다당제 실현과 사표의 최소화 그리고 지방의회의 다양성 증진이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역할 및 책임이 결정적이 다.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치 리더십의 역할이다. 이 대통령의 '국민주권주의'와 정 대표의 '당원주권주의'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험대 다. 우리는 이 대통령의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 제 개혁의 실현을 기대한다.

민주당은 2002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우리나라 정당 사상 처음으로 선호투표제를 실시한 경험이 있다. 2024년 6월 당헌·당규 개정은 내년 지방선거부터 선호 투표제 또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즉시) 결선투표'는 선호투표제의 다른 이름이다.

뉴욕시의 선호투표제는 2009년부터 시작된 논의와 준비로 12년 만에 마무리 된다. 기존과 다른 투·개표 방 식을 필요로 하고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시민의 압도적 지지와 성공을 이끌어낸다는 게 경험의 결과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호투표제의 시범실시가 필요 한 이유다. 선호투표제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한 종 합적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종교칼럼

입 안 가득 욕심 담은 다람쥐의 역설



최현열 광주 온교회 담임목사

유년시절 산에 올라 도토리를 줍던 나에겐 또 다른 강적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도토리를 찾아 이리저리 로 뛰어 다니던 다람쥐였다. 하루는 다람쥐를 잡아 보 려고 살금살금 다가가 잡았다 놓친 기억이 있다. 볼이 터질 듯 도토리를 가득 채우고 총총거리는 다람쥐는 귀 엽기 그지없다. 도토리를 땅에 묻어두고 겨울을 준비 하는 준비성도 철저한 것 같다. 그런데 이 작은 동물이 묻어둔 도토리 중 대부분을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재미 있는 사실이 있다. 당장 겨울을 나기 위해 저장했지만 결국 건망증 덕분에 도토리들은 싹을 틔우고 새로운 숲 을 이룬다는 것이다. 다람쥐의 망각이 도토리 나무의 번식을 이루는데 한 몫 하게 된 셈이다.

나는 다람쥐의 이런 역설을 보며 우리 신앙인들에게 도 망각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지 만 때로는 용감하게 잊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 다. 잊음으로써 오히려 더 큰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이 비밀이다.

우리가 가장 먼저 묻어두고 잊어야 할 것은 바로 과 거의 죄와 실수라는 무거운 짐이다. 죄책감은 우리를

한없이 짓누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 개했을 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다. "내가 그들의 불의 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 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 서하셨을 뿐 아니라 당신의 기억 목록에서조차 지우셨 다는 뜻이 담겨 있다.

다람쥐가 묻은 도토리를 잊어버리듯 하나님이 용서 해주신 죄를 우리가 계속해서 되새기며 스스로를 괴롭 히는 것은 '용서'라는 선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 는 것이다. 과거의 정죄감과 부끄러움을 잊어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용기이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길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 '망각의 기술'을 실천한 사람이라 하 겠다. 그는 과거 바리새인으로서의 영광이나 고통스러 웠던 핍박의 기억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려 했 다.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갈 것을 결단한 것이다. "형제 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14절)

다람쥐는 묻어둔 도토리에 집착하지 않아야 새로운 먹이를 찾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지나간 성취나 좌절에 매달려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 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을 향해야 마땅하다. 이것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닌 더 큰 비전과 성장을 위한 영적인 선택이 된 것이다.

잊어버린 선행이 되돌아오는 은혜의 씨앗이 되는 것 처럼 다람쥐의 지혜는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선행의 자세에도 깊은 교훈을 주고 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 침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4절)

사실 나도 가까운 지인의 어려움에 작은 도움을 준 적이 있었는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 일을 까맣게 잊 고 지냈던 것이다. 그런데 몇 년 후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분은 과거 나의 도움을 잊지 않 고 기억하여 나에게 다시 손을 내밀었다. 보답을 기대 하지 않고 묻어버리고 잊었던 선행이야말로 세월이 흐 른 뒤 나를 지탱해주는 은혜의 씨앗이 되어 돌아왔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다람쥐의 역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듯이 망각은 때 로 가장 큰 축복이 된다. 죄책감과 후회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이고, 베푼 선행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순수한 사랑을 배우며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잊어야 할 것은 과감히 잊고 변함없는 하나 님의 사랑과 은혜만은 기억하고 굳건히 붙잡아야 한 다.

이 '망각의 축복'을 통해 우리의 삶은 낡고 병든 과거 에 갇히지 않고 오직 미래의 소망을 향해 뻗어나가는 생명력 있는 숲이 될 것이다. 묻어버리고 잊어버린 도 토리가 숲을 이루듯 우리의 잊어버림 속에서 하나님 나 라는 확장되고 우리 삶에는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기 고



장인숙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본부장

광주광역시의 인구가 140만 명 선 아래로 떨어졌다 는 소식은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니다. 현장에서 만 나는 사람들의 삶에 여유가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 감과 걱정이 스며 있다.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한 명만 키 우는 청년 부부들, 그리고 일과 육아의 무게 사이에서 지쳐가는 부모들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마주한 현실 을 그대로 보여준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 60여 년 동안 시대마다 다 른 인구문제와 함께 걸어왔다. 1960~70년대에는 "딸

머무는 도시, 광주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 아래 산아 제한을 외쳤고, 2000년대에는 "엄마, 나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라며 출산장려를 호소했다. 지금은 "함께 키우 는 아이, 함께 만드는 미래"를 이야기한다. 그 문장 속 에는 저출생 시대의 새로운 가치, 곧 '함께하는 사회'의

광주광역시는 비교적 젊은 도시이지만 출생률 저하 와 청년층의 수도권 이주로 생산연령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젊은 세대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출산 지원이 너무 적어요. 놀 곳이 없어요. 정책이 있 어도 잘 모르겠어요." 이 짧은 말들 속에는 경제적 부

우리 협회는 인구변화대응 전문기관으로서 성 평등 관점에서 '인식의 변화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유치 원생부터 대학생,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인 구교육을 통해 '가족의 가치'와 '함께 사는 의미'를 나 누고, 인구문제를 생각하는 전국대학생네트워크와

100인의 아빠단 활동으로 젊은 세대가 스스로 인구문 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결혼과 출산, 육아, 교육, 일자리는 모두 하나의 연 결고리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핵심은 '일자리'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다면 청년은 떠나지 않고, 가정 은 꾸려지고, 아이는 자연스레 태어난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해법은 어느 한 기관의 몫이 아니다. 기업은 육아 친화적 직장문화를 만들고, 교육 기관은 청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시민은 지역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적

우리는 지금 인구의 수가 아닌, '사람이 머무는 도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일하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광주. 그 길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첫 걸음이다.

社說

분산에너지특구 전남…'지산지소 시대' 연다

전남이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된 것은 전력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일대 변혁을 가져온다는 의미다. 기후에너지부는 전 남을 포함해 전국 4곳을 처음으로 분산에 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했는데 전남의 22개 시군 모두가 대상이다.

분산에너지특구의 가장 큰 의미는 지역 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사용하는 이른바 '지산지소(地産地消)' 시대가 열 린다는데 있다. 지산지소 시대가 열리면 한전을 거치고 않고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어 전기요금 인하가 가능하다. 값싼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 데이터센터 등 전 력 수요가 많은 첨단산업을 유치하는데도 유리하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많은 전남은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 지로 사용하는 RE 100 산단 조성에서도 한 발 앞서 갈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을 안 겨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신

안군은 이전부터 '햇빛연금'이라는 이름 으로 태양광발전 소득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있는데 분산에너지특구가 본격 화 되면 전남지역 다른 주민들도 햇빛연 금이나 풍력연금을 받게 될 것이다. 전남 도는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에너지 기본소득을 연간 1조원 규모로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에너지 기본소득 1조원 실현까지는 난 간이 많을 것이다. 주민들의 출자를 얼마 나 할 것인지, 주민 간 출자 규모 차이로 인한 위화감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자 입장에 서도 전기요금 인하로 인한 피해는 없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한전을 통하지 않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구조에서 공급 가격이 기존 가격보다 턱없이 낮다면 공 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부 터 차분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에너지 지 산지소 시대에 대비하길 바란다.

광주 제안 국가NPU컴퓨팅센터, 정부 답해야

퓨팅센터를 광주에 설립해 달라고 정부에 제안한 것은 선제적 요구라는 점에서 긍 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실패라는 상 실감을 벗고 'AI 중심도시 광주'라는 이 미지를 새롭게 다지기 위한 불가피한 조 치라고 할 것이다.

강 시장은 지난 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서울미래컨퍼런스-AX 시티 와 6G' 기조연설에서 국산 AI 반도체 생 태계를 키울 실증·상용화 거점이 필요하 다면서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를 광 주에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PU는 신경망처리장치로 다소 낯선 개념이지만 차세대 AI 추론 인프라라고 생각하면 된다. GPU가 대규모 학습과 고 성능 연산에 효과적인데 반해 NPU는 AI 서비스의 추론 단계에 적합하고 전력 효율이 월등히 높다는 장점이 있다. 구 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NPU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에선 아 을 지키는 일일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가 NPU 전용 컴 지 초기 단계로 전용 데이터센터조차 없

광주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3 강'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 NPU 전용 컴 퓨팅센터 설립이 필요하고 광주에 있는 AI 기업들이 국산 NPU를 출시할 정도로 이미 생태계가 조성돼 있다는 점을 강조 하고 있다.

광주시가 국가 NPU 컴퓨팅센터 설립 을 주장하는 것은 공공성 확보 때문이다. 광주의 AI 기업들이 고성능 GPU를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 AI컴퓨팅센터에 공을 들인 것과 마찬가 지다.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실증-조달 -확산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 광주 가 진정한 'AI 중심도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제안한 것이다.

광주시의 선제적 제안은 절실함의 다른 표현이기도하다. 정부는 NPU 전용 컴퓨 팅센터의 필요성을 검증한 뒤 필요하다면 준비된 곳에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 약속

無等鼓

학창 시절 당구장은 '좀 노는' 학생들이 다니는 곳으로 여겨졌다. 1993년 헌법재 판소가 18세 미만 청소년의 당구장 출입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하기 전까지 사실 당구장은 학생들에게 금지된 곳이기 도 했다. 위헌 판결 이후 청소년들의 출입 이 가능해졌지만 꽤 오랜 시간 '당구장= 불량 학생 아지트'로 통했다.

게임에 대한 인식도 비슷했다. "눈 나빠 진다. 머리 나빠진다"라는 어른들의 잔소 리에 몰래 하던 게 게임이었다. '좀 노는' 학생들을 찾기 위해 선

생님들이 먼저 찾는 곳 이 PC방이기도 했다.

편집국안내

이제 세상이 달라졌 다. 당구와 게임을 통해서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당구는 1998년 방 콕아시안게임 때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 택됐다. 이후 2010년 광저우 대회 당시 다. 정식 종목에서 빠졌던 당구는 2030년 도 하에서 다시 금메달 경쟁을 펼치게 됐다.

당구가 스포츠로 인식되면서 스타 선수 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남성의 스포츠만 도 아니다. 여성들의 활약도 눈부시다. '당구 여제' 김가영은 앞선 시즌 7회 연속 우승과 함께 여자프로당구(LPBA)사상

처음으로 단일 시즌 누적 상금 3억원을 돌파한 선수가 됐다.

게임 상황도 극적으로 달라졌다. 게임 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게이머가 등장했 고, e스포츠는 전 세계적인 산업이 됐다. 정식 스포츠로도 도약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프 로게이머들이 국가를 대표해 게임을 했 다. 올림픽 정식 종목은 아니지만 국제올 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하는 e스포츠 올림픽 대회가 2027년 출범을 앞두고 있

다.

요즘 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LoL) 황제'로 통하는 페이커(이상혁)는 국내

는 물론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스타다. 대 회 상금으로만 20억원 이상을 벌었다는 그의 연봉은 70억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

광주에서 '2025 세계 3쿠션 당구월드 컵'이 열리고 있다. 세계랭킹 1~14위 선 수들이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별들의 잔치 다. 대회가 열리는 빛고을 체육관은 마침 e스포츠 게임장 같이 꾸며졌다. 이색적인 스포츠 현장에서 달라진 세상을 보았다.

/김여울 디지털·체육부장 wool@

光则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24 ⟨FAX 222-8005⟩ (FA 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치 부 220-0634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제 2 사 회 부 220-0680 디 지 털 부 220-0697 ⟨FA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메시지가 담겨 있다.

담, 문화적 결핍, 정보 부족이 모두 녹아 있다.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시'를 고민해야 한다.